釜山地域 先史時代 硏究의 回顧와 展望

안 재 호(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하 인 수(복천박물관 관장)

目 次

Ⅰ. 머리말
Ⅱ. 구석기시대
Ⅲ. 신석기시대
Ⅳ. 청동기시대
Ⅴ. 맺음말

Ⅰ. 머리말

부산지역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地理的인 立地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환경적인 요인으로 주거생활과 어로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先史時代부터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부산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부터 선사시대에 대한 유적조사와 연구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선사문화에 대한 연구는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고 新石器時代에 한정된 점도 없지 않지만 부산지역의 고고학적 연구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史學史的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광복이후 在地의 연구자들에 의한 지표조사·발굴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연구성과가 축적되면서 그 동안 불투명했던 부산의 선사문화에 대한 실체가 어느 정도 규명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동안 도시의 급격한 확장과 문화재조사법의 미비로 많은 유적이 충분히 파악되기도 전에 소멸되어 각 시대의 문화적 양상과 그 실체가 만족할 만큼 규명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단편적으로 혹은 특정 주제를 대상으로 선사고고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성과와 내용도 다양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선사시대의 연구 내용을 回顧해 보면서 향후 과제와 전망을 정리하고자 한다.

Ⅱ. 舊石器時代

지금까지 부산지역에서 발굴조사 되었거나 지표조사 등으로 확인된 구석기유적은 해운대 좌동, 중동, 청사포, 노포동유적 뿐 이다.[1] 물론 이들 유적 중에는 유물만 채집되고 정식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적의 문화적 내용과 성격이 불투명한 것도 있다.

부산지역에서 구석기유물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1985년 부산박물관과 부산대박물관이 공동으로 발굴한 노포동유적을 조사하는 과정에 구석기가 채집되면서부터 이다. 그러나 조사 당시에는 별로 주목되지 않았고, 1990년 부산박물관에서 실시한 부산지역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해운대 청사포유적이 발견됨으로서 구석기유적의 존재와 舊石器文化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소속 시기가 불투명했던 노포동유적의 석기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면서 後期舊石器時代의 石器임이 판명되었다.[2]

이후 인접한 해운대 좌동과 중동지역이 신가지 개발예정지로 지정되고, 개발 예정지에 대한 전면 시굴조사에서 구석기가 출토되어 발굴조사가 실시됨으로써 부산지역의 구석기문화가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었다.[3]

비록 부분적인 조사에 불과하지만 부산지역에서 확인되는 구석기유적이 적어도 後期舊石器時代부터 부산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하였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고고학적인 자료라는 점 뿐 만 아니라 지금까지 동삼동패총 자료를 근거로 부산의 역사를 BC. 6,000

1) 하인수, 『부산의 선사유적과 유물』 부산박물관 복천분관, 1997
2) 하인수, 『부산의 선사유적과 유물』 부산박물관 복천분관, 1997
3) 부산시립박물관, 『좌동·중동구석기유적』 2001 하인수, 『해운대중동좌동구석기문화』 제8회 영남고고학회학술발표회, 1999

년무렵부터 보던 인식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學史的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사유적은 급속한 도시개발과 확장으로 소수 몇몇 유적을 제외하고는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며, 유적의 소멸과 훼손은 선사문화를 규명하는데 절대 필요한 고고자료의 확보는 물론이고 鄕土史를 연구하고 복원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부산지역의 구석기문화에 대한 연구는 해운대구석기유적 발굴보고서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라고 과언이 아니며, 최근 들어 부산지역의 구석기문화라는 주제로 발표된 한편의 논문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4)]

이 논문은 구석기 연구자인 박영철과 장용준에 의해 발표된 것인데, 기존에 발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개별 유적의 검토를 통해 유물의 편년과 성격을 고찰한 것이다. 이 역시 자료 부족으로 부산지역 구석기문화의 전체적인 양상과 성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부산지역의 구석기문화를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부산지역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영남지역 구석기문화의 양상과 편년을 고찰한 논고[5)]도 부산지역 구석기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무튼 앞으로 부산지역의 구석기문화를 체계적으로 규명되고 연구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굴된 해운대 구석기유적의 재검토 뿐 만 아니라 이미 지표조사되어 그 존재가 드러난 노포동유적과 청사포유적이 소멸되기 전에 충분한 학술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아울러 그 문화적 양상과 성격을 밝히는 노력도 필요

4) 박영철·장용준, 「부산의 구석기문화」『항도부산』17, 2001
5) 박영철, 「영남지역 구석기문화상과 편년」『영남지방의 구석기문화』,영남고고학회, 1999

하다고 하겠다.

이밖에 해안을 중심으로 정밀 지표조사를 통해 새로운 구석기 유적의 확인 작업과 구석기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新石器時代

1. 조사현황

부산은 어로와 수렵 활동을 主生業經濟로 하였던 신석기시대의 각종 유적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가장 조밀한 분포상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 신석기문화 연구에 중요한 지역으로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다.

지금까지 부산지역에서 발굴조사 되었거나 지표조사 등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유적은 20개소에 이른다<표1 참조>. 이들 유적 중에는 유물만 채집되어 유적의 위치가 불명이거나 현재 소멸되어버린 것도 상당수 있다. 정식 조사된 유적으로는 동삼동, 범방패총, 범방유적, 율리패총, 북정패총 등을 비롯한 8개소이다. 지표조사나 간단한 시굴조사가 이루어 진 유적은 12개소인데, 이중에는 절반 이상이 소멸되고 가덕도 외양포, 대항패총, 동삼동 하리패총, 세산유적, 기장 공수유적 등 5개소만 잔존하고 있다.

부산지역 신석기유적의 조사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에 鳥居龍藏이 암남동패총에서 신석기 말기의 二重口緣土器를 채집한 것이 최초이다. 조사 당시의 사항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이후 有光敎一에 의해 채집유물에 대한 재검토가 이

표1. 부산지역 신석기유적 조사 현황

유적명	조사연도	성격	시기	출토유물	비고
암남동패총	1923	패총	말기	이중구연토기,단사선문토기	지표조사
동삼동패총	1930~2005	패총, 주거지 분묘, 포함층	조기~말기	즐문토기, 골각기, 석기, 일본 조몽토기, 흑요석, 패천 등	발굴조사
영선동패총	1933	패총	조기~전기말기	융기문토기, 자돌압인문토기, 석기, 골각기 등	시굴
다대포패총	1934 1966	패총	조기~중기	융기문토기, 태선침선문토기, 흑요석 등	발굴조사
청학동패총	1930			즐문토기, 골각기	지표
구평동패총	1965	패총	?	즐문토기	지표
율리패총	1972	암음, 패총	후기~말기	이중구연토기, 석기	발굴
조도패총	1970 1973	패총	조기~중기	융기문토기,자돌압인문토기,태선침선문토기,석기, 골각기 등	발굴
용호동유적	1976	포함층	전기?	인부마연석부, 석착, 지석	
동삼동 상리패총	1982	패총, 포함층	말기	이중구연토기	지표조사
다대포 봉화산유적	1982	포함층	전기	인부마연석부, 석착, 찰절석기, 지석	지표조사
범방패총	1991	패총, 분묘	조기~말기	즐문토기, 석기, 골각기, 패천, 장신구 등	발굴
세산유적	1991	포함층	조기?	석부	지표조사
북정패총	1992	패총	조기~중기	융기문토기, 자돌압인문토기 등	발굴
대항패총	1992	패총	조기~중기	융기문토기, 태선침선문토기, 흑요석, 패천	지표조사
외양포패총	1992	패총	전기	자돌압인문토기	지표조사
시랑리 공수유적	1996	포함층	조기	파상구연 즐문토기, 지석, 흑요석박편, 박편석기 등	지표조사
범방유적	2001	야외생활지	조기~말기	즐문토기, 미제석부, 타제석부, 흑요석석기 등	발굴
이길봉수대	2001	포함층	전기(?)	지석, 편평편인석부	발굴
태종대진입도로확장부지유적	2004	포함층, 적석유구, 구	조기~말기	융기문토기. 결합식조침 석촉,지석, 고석, 토제품 등,	발굴

루어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후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던 釜山考古會의 及川民次郎, 大曲美太郎 등의 동호회 회원들에 의해 동삼동패총이 발견되고[6], 몇 차례 간단한 시굴이 이루어지면서 신석기유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조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진다.[7]

이 시기에 발견된 유적으로는 유명한 영선동패총[8]과 다대포패총[9], 청학동패총이 대표적이다. 이들 유적에 대한 간단한 시굴 조사는 이루어 졌으나 지표조사에 가까운 조사였기 때문에 관련 자료의 共伴關係라든가 유적의 층위, 성격 등이 불확실한 점이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국내에서 활동하던 일인연구자들이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던 신석기시대유적에 대한 조사성과가 광복 이후 부산지역의 선사문화를 연구하는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부산지역 고고학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광복 이후 부산지역의 신석기유적 조사는 단편적이지마는 재지의 향토사연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조사활동은 일제강점기에 확인된 유적의 재조사와 주변지역에 대한 지표 및 시굴조사가 주류를 이루었다.[10] 그 와 중에 부산대박물관

---

6) 及川民次郎,「南朝鮮牧ノ島東三洞貝塚」『考古學』 4-5, 1933
横山長三郎,「釜山府絶影島 東三洞貝塚調査報告」『史前學雜誌』 5-4, 1933
7) 吉井秀夫,「釜山考古會とその活動について」『倭城の研究』 5, 2002
8) 有光敎一,「朝鮮釜山府 瀛仙町の一貝塚に就いこ> ≪人類學雜誌≫ 5-12, 1936
9) 大曲美太郎, 「慶南 多大浦にて貝塚發見」『ドルメン』 3-6, 1934
10) 朴商憲,「洛東江口 東岸의 貝塚」『考古美術』 第6卷 第6號, 1965. 6
金東鎬,「釜山地方의 貝塚」『古文化』 4, 1966
Sample, L.L,「Tongsamdong ; A Contribution to Korea Neolitic Culture History」『Artic Anthropology』 XI-2, 1974
현재는 소멸되고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으나 구평동과 조도패총과 같은 새로운 유적이 당시에 발견되기도 하였다.

에서 실시한 다대포패총의 발굴[11]과 국립중앙박물관의 동삼동패총 1차 조사[12]는 광복 이후 우리 연구자들에 의해 실시된 부산지역의 고고학적인 조사였다.

특히 1966년도에 실시된 다대포패총의 발굴은 비록 6일간의 짧은 조사였지만 동삼동패총과의 관련성과 다대포패총의 문화적 양상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뿐 만 아니라 부산지역 최초의 학술발굴조사라는 점에서 중요한 학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970~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술발굴조사가 증가하고 관련 연구자들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된다. 1970년대에는 동삼동패총 발굴조사가 1차 조사에 이어 2, 3차 조사가 실시되고, 한국해양대학교 신축공사로 인한 조도패총이 1973년도 발굴된다. 특히 동삼동패총 발굴은 우리나라 신석기문화를 규명하기 위한 계획적 학술조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발굴 결과 신석기시대 韓日文化의 실체와 신석기문화의 변천관계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됨으로서 이후 신석기문화를 대표하는 표준유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

조도패총[13]은 한국해양대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전 발굴조사로 이루어졌으며, 건설공사와 관련한 부산지역 최초의 긴급조사였다.

이밖에 지표조사에서 범방패총, 북정패총, 다대포 봉화산유적이 추가로 확인되었는데, 범방패총과 북정패총은 1970년초 부산대박물관에서 실시한 경남지역 패총 조사과정에서 처음

11) 金龍基, 「多大浦貝塚 發掘調査 報告」『釜大史學』 2, 1971
12) 국립중앙박물관,『동삼동패총』 Ⅰ~Ⅳ, 2002. 5
13) 국립중앙박물관,『朝島貝塚』 1979
하인수,「조도패총의 문화」 해양대학교 개교59주년기념심포지움, 2004

으로 확인되어 학계에 소개되었다.[14] 특히 범방패총은 1991년에 부산박물관에 의해 학술 발굴조사 됨으로서 신석기 조기에서 말기에 걸쳐 형성된 대규모 패총임이 밝혀지게 되었고, 여기서 隆起文土器를 비롯 각종 櫛文土器, 結合式釣針, 集石遺構, 土壙墓 등이 검출됨으로써 남해안 신석기문화를 연구하는데 동삼동패총에 버금가는 중요 유적으로 판명되기도 하였다.

다대포 봉화산유적[15]은 1976년 다대포에 소재하는 응봉봉수대 복원 공사 중에 석기가 일괄 출토됨으로써 알려지게 되어, 이후 山上에 입지하는 유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다.[16]

1980년대는 유적 발굴과 지표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용호동유적과 동삼동 상리유적[17]이 새로 확인된 정도이다. 용호동 산2번지 일대의 小路 공사 중에 石斧를 비롯한 石鑿, 砥石 등이 일괄 발견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는데, 발견 당시에는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이후 연구 결과 신석기시대 석기로 판명되기도 하였다.[18]

1990년대는 범방패총[19], 북정패총[20], 동삼동패총(4차조사)[21]이 학술 발굴 조사되고, 대학박물관에서 부산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실시됨으로써 부산지역 신석기문화 연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조사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부산지역 신석기유적 조사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된

14) 鄭澄元,「金海地方의 櫛文土器文化」『又軒丁仲煥博士 還曆記念論文集』 1974
15) 하인수,「釜山 多大洞龍湖洞 出土 石器類」『釜山直轄市立博物館 年報』13, 1991
16) 하인수,「新石器時代 山上遺蹟에 대하여」『부산박물관 연구논문집』12, 2006
17) 鄭澄元,「南海岸地方의 櫛文土器 硏究」『釜大史學』6, 1982
18) 하인수,「釜山 多大洞龍湖洞 出土 石器類」『釜山直轄市立博物館 年報』13, 1991
19) 부산광역시립박물관, 『凡方貝塚』 Ⅰ, 1993
20) 釜山水産大學校博物館, 『北亭貝塚』1993
21) 부산박물관,『동삼동패총정화지역발굴조사보고서』 2007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루진 지표조사에서는 대항패총과 외양포패총이 신라대박물관(구 부산여자대학교)에 의해서 발견되었으며[22], 부산대박물관의 기장군 지표조사에서는 시랑리 공수부락에서 유물 포함층 유적이 새로 확인되었다.[23] 그리고 범방패총 주변의 세산에서 刃部磨製石斧가 채집됨으로써 이곳에도 유적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24]

1990년대의 조사 성과는 새로운 발굴조사를 통해 부산지역 신석기문화 전개양상과 지역적 특징이 보다 구체적으로 부각되었으며, 도서지역에서도 당시 신석기인의 생업활동과 형태를 알 수 있는 새로운 패총유적이 추가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대규모유적이 발견되고, 기왕에 알려진 유적의 주변지역 조사를 통해 새로운 유적이 발굴된다. 그 결과 기존 유적의 성격을 재검토할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부산아시안 승마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범방패총 옆에 위치한 생활유적인 범방유적[25]이 조사 되고, 경성대박물관과 동아대박물관에 의해 긴급 조사된 동삼동패총 주변지역의 도로확장부지에서 積石遺構와 溝, 住居址(?) 등이 발굴되기도 하였다.[26]

부산박물관이 조사한 이길봉수대의 포함층에서는 석기가 수습됨으로써 이길봉수대 유적이 조성되기 전에 전술한 다

22) 釜山女子大學博物館,『加德島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1993
23) 부산대박물관,『기장군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1998
24) 하인수,『부산의 선사유적과 유물』부산박물관 복천분관, 1997
25) 하인수,「범방유적 발굴개요」『한국신석기연구』3, 2002
26) 이동주,「해수면 상승흔적이 확인되는 동삼동유적의 성격에 대하여」『한국신석기연구』11, 2006. 경성대박물관, 『태종대 진입도로 확장부지내 부산동삼동유적』2006

대포 봉화산유적과 같은 山上遺蹟이 존재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27] 이 시기의 조사는 1990년대의 이어 부산지역 신석기 유적의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지역 신석기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많은 신자료가 축적되었다는 점에서 후술하는 연구 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일제 강점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적이 확인되고 조사된 부산지역은 우리나라 신석기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은 분명하나, 그 동안 많은 유적이 불식간에 각종 건설공사와 도시의 확장으로 소멸되었다는 점도 부인 할 수 없다. 앞으로 부산지역 신석기문화를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확인된 유적의 보존 뿐 만 아니라 정밀 지표조사 등으로 통해 새로운 유적의 발견과 조사도 꾸준히 이루어 져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흐름과 과제

(1) 연구경향

부산은 1876년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고고학적인 조사와 연구는 어느 지역보다 가 일찍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考古學的인 조사가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일본 연구자의 주도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 부산지역 선사문화를 연구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27) 하인수,「新石器時代 山上遺蹟에 대하여」『부산박물관 연구논문집』12, 2006
부산박물관,『이길 봉수대』12, 2004

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부산지역의 선사문화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신석기시대에 한정하여 초기에는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는 재지의 연구자들의 활동에 힘입어 새로운 유적의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구석기와 청동기시대 유적이 발굴되면서 이전과 달리 연구의 폭도 넓어지고, 주제도 다양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신석기대에 한정하여 고고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그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산의 신석기시대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1930년대 부산에 거주했던 일본인 아마추어 고고학자 혹은 동호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大曲美太郞, 及川民次郞, 宮川肇 등이 중심이 되어 1931년에 설립된 釜山考古會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28] 이들 멤버들은 주로 부산지역의 유적 발견과 조사에 치중하여 활동하였을 뿐 부산지역의 신석기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논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동삼동패총과 영선동패총, 다대포패총의 발견과 조사는 당시 부산고고회원들의 활동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조사 성과는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藤田亮策이나 有光敎一, 橫山將三郞의 주목을 받았다. 그 당시 동삼동패총을 조사했던 橫山將三郞에 의해 보고되었던 동삼동패총발굴보고서[29]는 동삼동패총 출토유물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동삼동패총문화의 위치와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일본 繩文文化의 관련성을 검토한 점은 당시의 연구 수준에서 볼 때 학술적으로 뛰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有光敎一에 의해

28) 吉井秀夫,「釜山考古會とその活動について」『倭城の硏究』 5, 2002
29) 橫山長三郞,「釜山府絶影島 東三洞貝塚調査報告」『史前學雜誌』5-4, 1933

조사되었던 영선동패총[30]은 후일 남부지방 전기 즐문토기문화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로서 뿐 만 아니라 瀛仙洞式라는 土器型式을 설정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광복 이후의 연구 활동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고,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지 연구자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의 조사 성과를 기초로 패총유적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31] 신석기문화 전반의 구체적인 연구로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것은 당시의 고고학적 사정으로 부산지역 신석기문화를 검토할 만 충분한 자료와 연구 성과가 축적되지 않은 데 원인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써 1970년대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사례가 다대포패총과 동삼동패총의 학술연구조사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산지역 신석기유적을 조사하고 연구했던 연구자로는 김동호(전 동아대사학과 교수), 박상헌(전 삼성중학교 교장), 김용기(전 부산대사학과 교수), 임돈(전 국립해양대 교수) 등이 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1960년대 중반부터 조사되어 1971년에 마무리 된 동삼동패총 발굴 성과[32]와 논문[33]이 발표되

30) 有光敎一,「朝鮮釜山府 瀛仙町の一貝塚に就いこ」『人類學雜誌』 5-12, 1936

31) 朴商憲,「洛東江口 東岸의 貝塚」『考古美術』 第6卷 第6號, 1965. 6
金東鎬,「釜山地方의 貝塚」『古文化』4, 1966
이들의 연구는 기존에 알려진 유적이나 새로 발견된 유적을 소개하고 출토유물에 대한 약간의 검토를 가한 정도이며, 패총유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성격을 논한 것은 아 니다.

32) 김원룡,『한국고고학개설』 일조각, 1973

33) Sample, L.L, 「Tongsamdong ; A Contribution to Korea Neolitic Culture History」『Artic Anthropology』 XI-2, 1974
모아·샘플의 동삼동패총의 시굴조사 결과는 橫山將三朗 이래 정설화되어 왔던

고, 조도패총과 율리패총이 발굴되면서 연구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한다. 물론 당시의 연구 범위와 주제가 부산지역 신석기문화 전반을 구체적으로 검토 분석한 것이 아니고 개략적인 흐름을 제시한데 불과 하지만 그 동안 불투명했던 신석기토기 문화의 編年과 기원, 전개와 문화적 특징 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동삼동패총 발굴 성과를 기본으로 제시된 즐문토기문화의 前期, 中期, 後期의 3단계 변천설[34]과 栗里式土器로 명명된 二重口緣土器가 신석기시대 末期의 土器型式[35]이라 점은 분명히 한 것은 커다란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부산지역 선사고고학 연구를 주도했던 김정학(전 부산대 사학과 교수)은 그 당시까지 조사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先史時代의 釜山>이라는 논고[36]를 발표하여 이후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74년에 간행된 부산시사에 수록된 김정학의 논고는 부산지역 선사문화를 처음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학사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당시까지 발굴된 유적과 유물을 중심으로 그 성격만 분석하고 신석기문화 전반적인 성격을 다루지 못한 한계점도 보인다.

동삼동패총→ 영선동패총이라는 편년이 부정되고, 조도기 ,목도기, 부산기, 두도기, 영도기라는 동삼동패총 5기 편년안이 새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토기의 분류방법 및 체계, 층위별 출토유물의 신뢰성 문제, 층위에 따른 문화기 설정의 타당성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34) 국립중앙박물관의 동삼동패총 발굴 결과는 김원룡, 한병삼에 의해 남해안 즐문토기 3기 편년 즉 동삼동하층문화(동삼동1기 - 융기문토기와 영선동식토기)와 중층문화(동삼동2기 - 남해안의 전형적인 태선침선문토기), 상층문화(동삼동3기 - 이중구연토기)로 나타난다. 이러한 견해는 후술하는 수가리패총 발굴보고자들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35) 金廷鶴編,『韓國の考古學』河出書房新社, 1972

36) 金廷鶴,「先史時代의 釜山」『釜山市誌』 上, 1974

아무튼 이러한 분위기에 속에서 부산과 주변지역에 대한 신석기문화에 고찰[37]과 개별유적의 출토유물에 검토 및 과학적인 분석[38] 이 발표되면서 부산지역 신석기문화에 대한 연구는 한층 심화되기 시작한다.

1970년대의 연구 경향은 그 동안에 축적된 유적조사와 동삼동패총과 율리패총의 발굴 성과에 힘입어 그 동안 단편적으로 취급되어 왔던 부산지역의 신석기문화를 한반도 전체 흐름 속에서 그 성격과 특징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생업이나 사회구조, 문화계통, 편년 등 개별 주제에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관련 유적과 출토유물에 대한 검토 수준에 머물거나 개설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본격적으로 신석기문화의 성격과 시기별 변화 양상, 개별 주제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부터이다. 1980년대 신석기연구는 남해안지역의 학술조사가 증가하고 1970년대에 발굴 조사된 율리패총과 수가리패총 조사보고서가 간행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일본 소장 연구자인 廣瀨雄一, 小原哲, 宮本一夫 등이 가세하면서 연구 분야가 한층 다양하게 되고 폭도 넓어 진다.

물론 이들의 연구가 부산지역에 한정한 것은 아니지만, 부산지역의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부산지역 신석기연구 성과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자료의 소개[39]와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37) 윤병용, 「釜山지방의 신석기문화에 대한 소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5
鄭澄元, 「金海地方의 櫛文土器文化」 『又軒丁仲煥博士 還曆記念論文集』 1974
38) 임돈, 「부산 선사기 토기편에 대한 열분석법의 적용>『한국해양대학논문집』9, 1974
임돈, 「朝島貝塚 出土遺物 小考」 『韓國海洋大學論文集』13, 1978

영선동패총를 재검토한 논고[40]도 발표되었다.

이 시기는 주로 즐문토기의 편년문제와 시기구분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불투명했던 즐문토기문화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작업인 동시에 발굴 자료 중 해당 자료(즐문토기)가 가장 풍부한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1980년대의 가장 큰 연구 성과는 수가리패총[41]의 발굴성과를 기초로 한 한반도 남부지방 櫛文土器文化의 5期 編年案이 완성된다는 점이다. 수가리패총 보고자들은 1970년대에 제기된 동삼동패총의 3단계 편년설과 原始無文土器論을 비판하고, 櫛文土器의 시문수법과, 문양형태 등 型式學的 방법을 통해 남해안지방의 신석기문화를 隆起文土器를 표식으로 하는 早期, 刺突押引文土器의 전기, 太線沈線文土器를의 中期, 退化沈線文土器의 後期, 二重口緣土器 즉 栗里式土器를 특징으로 하는 晩期의 5단계 편년설을 제시하였다.

한편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지역의 즐문토기 연구는 廣瀨雄一[42], 小原哲[43], 宮本一夫[44] 등 주로 일인 연구자에 의해서 보다 구체적 전개되기 시작하고 특히 융기문토기와

39) 鄭永和,「東三洞採集石器」『영남고고학』 2, 1986
40) 金東鎬,「영선동패총의 재검토」『부산사학』 8, 1984
金東鎬,「韓國東南海岸島嶼の先史土器とその文化」『考古學シヤナル』183, 1980
41) 부산대학교박물관,『김해수가리패총』 Ⅰ, 1981
42) 廣瀨雄一,「韓國隆起文土器論」,『異貌』11, 1984
廣瀨雄一,「韓國隆起文土器の系譜と年代」『異貌』12, 1986
廣瀨雄一,「韓國南部地方櫛目文後期の變遷」,『九州考古學』64, 1989
廣瀨雄一,「韓國嶺南地方櫛文土器前期の土器變遷」,『考古學の世界』, 新人物往來社,1989
43) 小原哲,「韓國隆起文土器の檢討」,『伽倻通信』13·14, 1985
小原哲,「朝鮮櫛文土器の變遷」,『東アジアの考古と歷史』上, 1986
44) 宮本一夫,「朝鮮有文土器の 編年と地域性」,『朝鮮學報』121, 1986

영선동식토기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된다.

이들 연구자들 중 廣瀨雄一는 특히 남해안지역의 櫛文土器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연구자 중 가장 많은 논고를 발표, 나름대로 자신의 編年案을 완성하고 있다. 編年의 기본 골격은 수가리패총의 그것과 대차 없으나 융기문토기와 영선동식토기를 묶어 하나의 시기(전기)로 편년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한편 부산지역의 신석기시대 대표적인 연구자인 정징원은 기존의 연구 성과와 발굴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부산지역 신석기문화의 편년과 성격을 고찰한 논고[45]를 발표함으로써 그 동안 불투명했던 부산지역 신석기문화의 대강을 제시하고, 이와 동시에 남부지역 즐문토기에 대한 여러 편의 논고[46]를 발표함으로 이 지역 즐문토기 연구의 기초를 마련한다.

1980년대의 연구 경향과 분위기는 1990년대 그대로 이어지고 범방패총, 북정패총, 동삼동패총 정화지역 발굴과 가덕도 및 기장군 지역 지표조사 등에 따른 신자료의 증가에 힘입어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된다. 이 시기의 연구 특징은 연구 주제가 세분화되고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일문화교류 관한 연구[47]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단편적 혹은 포괄적으로 취급되어 온 교류 문제가 교류의 배경과 목적, 실태 등 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실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는 그 동안 성격이 불투명했던 유물에 대한 자료

45) 鄭澄元,「先史時代의 釜山」『釜山市史』1, 1990

46) 鄭澄元,「南海岸地方의 櫛文土器 硏究」『釜大史學』 6, 1982
鄭澄元,「新石器時代 丹塗磨硏土器에 대한 一考察」『釜大史學』 4, 1981
鄭澄元,「南海岸地方 初期櫛文土器의 一檢討」『嶺南考古學』 7, 1990

47) 鄭澄元·河仁秀,「南海岸地方과 九州地方의 新石器時代文化交流硏究」,『韓國民族文化』12, 1998

의 재검토[48]와 부산지역 선사유적과 유물에 대한 자료집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49] 그리고 그 동안 편년과 계통문제에 논의가 빈번하였던 즐문토기 조기의 隆起文土器와 指頭文土器에 대한 논문도 발표되었다.[50] 1990년대 초에 발굴되었던 범방패총의 보고서의 간행[51]은 당시까지 문화적 실체가 불투명했던 동삼동패총을 중심으로 이해 되었던 부산지역 신석기문화를 구체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석기시대의 생업과 경제활동, 생계유형을 복원 할 수 있는 자연유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주로 토기를 중심으로 한 분류와 편년문제에 치중한 한계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인 연구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한일 교류관계에 대한 연구가 재지 연구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연구 성과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는 그 동안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재지의 소장연구자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이들에 의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는 시기이다. 이와 더불어 동삼동패총 발굴 보고서의 간행과 대규모 건설 공사에 따른 범방유적[52]의 발굴 등에 힘입어 연구 분야가 세분화되고 범위가 확대되면서 활성화된다. 1999년 부산박물관에 의해서 발굴된 동삼동패총 발굴 결과[53]가 발표되면서 기존의 연구 성과가 재검토되고, 토기 중심으로

48) 하인수,「釜山 多大洞龍湖洞 出土 石器類」『釜山直轄市立博物館 年報』 13, 1991
49) 하인수,『부산의 선사유적과 유물』 부산박물관 복천분관, 1997
50) 하인수,「嶺南地方 隆起文土器의 再檢討」『嶺南地方의 新石器文化』1997
하인수,「指頭文土器의 考察」『釜山史學』28, 1995
51) 부산광역시립박물관, 『凡方貝塚』Ⅰ, 1993
52) 하인수,「범방유적 발굴개요」『한국신석기연구』 3, 2002
53) 하인수,「동삼동패총문화에 대한 예찰」『한국신석기연구』 7, 2004

진행되어 온 編年문제 뿐 만 아니라 交流와 交易[54], 생업과 생산[55], 自然遺物 분석을 통한 生計形態의 분석[56], 농경문제[57] 등 연구 분야가 다양화되고 확대되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부산지역에서 조사된 신석기유적과 유물에 대한 검토와 이를 통한 유적의 성격과 편년 작업도 이루어지고[58] 동삼동패총 주변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지역의 자연 환경변화 즉 해수면 변동에 관한 견해가 새로운 관점에서 발표되었다.[59]

이 밖에 부산지역에 한정한 것은 아니지만 신석기시대 어로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논고가 부산박물관 동삼동패총 전시관에서 간행되면서[60] 부산지역 신석기 연구 활동이 보다 풍부하고 다양하게 된다.

2000년대 들어 와서 부산지역 신석기연구의 주요한 성과는 동삼동패총 출토유물의 분석 결과가 발표되면서 기존에 단순한 패총유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동삼동패총에서 甕棺墓를 비롯하여 시기를 달리하는 주거지도 발견됨에 따라 복합유적으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상동패총 집단이 교역과 貝釧의 생산을 통해 주변의 소규

54) 하인수,「신석기시대 한일문화교류와 흑요석」『한국고고학보』 58, 2006
55) 신숙정,「부산지방의 신석기시대 생업경제」『항도부산』 17, 2001
56) 이준정,「동물자료를 통한 유적 성격의 연구」『한국고고학보』 50, 2003
57) 하인수,「동삼동패총 1호주거지 출토 식물유체」『한국신석기연구』 2, 2001
58) 이동주,「부산의 신석기시대 유적과 유물」『항도부산』 17, 2001
하인수,「조도패총의 문화」 해양대학교 개교59주년기념심포지움, 2004
하인수,「新石器時代 山上遺蹟에 대하여」『부산박물관 연구논문집』12, 2006
하인수,『영선동식토기와 암사동식토기』한국신석기연구 5, 한국신석기학회, 2003
59) 이동주,「해수면 상승흔적이 확인되는 동삼동유적의 성격에 대하여」『한국신석기연구』 11, 2006
60) 동삼동패총 전시관,『신석기시대의 어로문화』 , 2006

모 집단을 아우르는 동남해안지역의 중심 집단 내지 據點集團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가설도 제기 되었다. 그리고 동삼동패총인의 생업 형태도 이전의 수렵·어로활동을 주요 生業基盤으로 했던 것과 달리 교역, 貝釧 生産, 조·기장의 밭작물을 중심으로 한 농경활동 등을 통한 多元的인 生業構造를 가지고 있었음도 밝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61]

특히 동삼동패총과 범방유적 출토 흑요석의 분석 결과 일본 九州産으로 판명된 것은 당시 한일 교류관계를 구체적으로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62]

(2) 연구과제와 전망

일제 강점기의 대부분 고고학적 연구가 주로 낙랑유적과 삼국시대의 고분 발굴에 한정되어 이루어 졌음에 비해 부산지역은 지리적 혹은 환경적 요인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패총 중심의 신석기시대 연구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부산지역의 신석기시대 고고학적 연구는 다른 어떤 지역 보다 일찍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사적 배경은 부산지역의 고고학적 연구가 광복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적을 발굴하고 새로운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동인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부산의 신석기시대 연구 현황을 회고해 보면 앞

61) 부산시립박물관,『동삼동패총정화지역발굴조사보고서』 2007
62) 하인수,「형광X선분석에 의한 동삼동·범방유적 출토 흑요석산지 추정」『한국신석기연구』6, 2003

으로 해결되어야 할 많은 과제도 않고 있음은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와 전망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두고자 한다.

부산지역은 1876년 개항이래 일찍부터 지역 자체가 도시화되고, 그에 따른 각종 개발과 건설로 많은 유적이 파괴되고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행정구역의 개편과 확대로 아직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지역(기장군, 강서구 등)이 넓게 존재하면서, 이들 지역에 신석기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유적의 보존과 보호 못지않게 새로운 유적의 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정밀한 지표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뿐 만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유적의 보호, 보존조치와 더불어 더 이상 도시화와 개발에 따라 유적이 소멸되기 되기 전에 체계적인 학술조사를 통한 연구 자료의 확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가덕도의 대항과 외양포패총, 기장의 공수유적 등은 더 이상 유실되기 전에 학술조사가 실시되어 관련 자료의 확보와 유적성역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 발굴 자료의 재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그 동안 불투명했던 신석기문화의 변천과정과 즐문토기의 형식 편년이 어느 정도 확립되었으나 생업과 사회구조 등을 포괄하는 총합적인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한계점도 없지 않다. 따라서 부산지역 신석기문화의 특징과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된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해안지역 신석기문화의 성격과 특징을 재조명하는 작업도 아울러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부산지역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리적 조건 뿐 만 아니라 생업환경의 유사성으로 일찍부터 일본 지역과의 교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음은 선학의 연구로 밝혀진바 있다. 그 동안의 연구가 교류라는 포괄적인 틀 속에 진행되어 왔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실체와 시례를 통해 교류의 구체적인 배경과 물자 이동, 교류루트 등을 규명하고, 지역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문화 이입 관계와 재지 문화의 변화 양상 등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흑요석 산지분석에 대한 한일공동연구 작업과 한일 양지역 출토 교류 문물에 대한 형식학적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산 재지와 내륙의 타지역간의 교류 관계와 물자 이동 연구를 통해 지역간 교환망 구조와 교역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이해서는 즐문토기의 이동과 석기, 장신구 등의 산지 분석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한편 부산지역에 거주했던 신석기인의 생업구조와 생계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고고자료 즉 토기나 석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 방법을 탈피하여 동물유체나 어패류 등 자연유물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고환경 분석을 통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현안들은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앞으로 시간을 갖고 새로운 연구방법과 시각을 통해 하나 하나 풀어 나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최근 들어 부산지역 신석기연구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대학과 박물관 소장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둔다면 앞으로 부산지역 신석기시대 고고학의 연구 전망을 밝다고 할 수 있다.

Ⅳ. 靑銅器時代

부산은 일찍이 도시화가 이루어져 지상에 구조물이 남겨진 支石墓같은 유적만이 간헐적으로 조사되었을 뿐, 대부분의 구릉지에 유존하였던 靑銅器時代 취락은 소멸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釜山의 靑銅器時代를 조망할 자료는 절대 부족일 뿐만 아니라 그나마 알려진 단편적인 자료는 시간성만 알려줄 뿐, 청동기사회를 알만한 유기적이며 종합적인 정보는 갖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靑銅器時代는 三韓時代와는 달리 현재의 시·군단위 규모의 정치체가 발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지역단위의 지역색도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釜山지역의 靑銅器時代文化라는 것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 광역의 지역文化에 포함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釜山의 靑銅器時代文化에 대한 연구 경향을 살피고자 한다.

靑銅器時代 연구는 최근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시기구분은 松菊里文化를 後期로 설정하는 안[63]에 따르고자 한다. 그

63) 鄭漢德,「欣岩里類型 形成過程 再檢討에 대한 토론」『湖西考古學』創刊號, 湖西考古學會, 1999 李弘鍾,「初期 農耕社會의 住居와 聚落」『韓國古代文化의 變遷과 交涉』서경문화사, 2000 安在晧,『靑銅器時代 聚落硏究』釜山大學校

리하여 본고에서는 早期 前期 後期의 3시기로 설정하고자 한다. 특히 前期는 전·후반으로 분리되어 설명되는데, 한반도 전체에서 본다면 후반이 되면서 대규모취락이 등장하고, 支石墓, 계단식논, 마제석검과 典型赤色磨硏土器 등이 두드러지는 시점인 것을 고려한다면, 전반의 사회에서 매우 진전된 이질적인 사회상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前期의 전·후반을 각각 前期와 中期로 설정하는 것도 의미있는 시안이라고 생각한다. 이후 본고의 시기구분은 물론 다른 연구자들의 견해도 모두 早·前·後期의 3시기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1. 조사현황

(1) 지표조사

釜山지역의 고고학적 지표조사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각 2건, 1980년대엔 1건만이 알려져 있다. 1990년대는 9건, 2000년대엔 3건이다. 이것은 지표조사가 제대로 학술적인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 1990년대 구체적으로는 1997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는 정부의 지표조사제가 시행된 시점이다. 그나마 지표조사가 시행된 곳도 도시화가 덜 진행된 곳일 뿐이다. 釜山의 아파트건설이나 재건축지역, 지하도나 지하철공사 등의 지하 굴착과 관련된 개발에 따른 매장문화재조사는 개발논리에 철저히 내몰리거나, 평지라든가 또는 하천변이라는 이유 등으로 외면당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釜山은 東萊貝塚이나 福泉洞古墳群 蓮山洞古墳群으로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6

상징되는 강력한 정치체가 자리한 곳이었고, 해안의 新石器時代 유적이 무수히 밀집하였던 곳이었다. 당연히 青銅器時代 대외교류의 결정적인 자료도 찾을 수 있는 곳이고, 또한 정치체의 발생이나 성장을 구명할 수 있는 고고자료의 보고였을 것이다. 이 모든 자료의 결손은 행정의 문화적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런 처지에서 釜山이 서울에 못지않게 역사성을 잃어버린 현대문명만을 지닌 빈약한 비문화의 도시가 되고 만 까닭이다.

표2. 釜山지역 青銅器時代 유적의 지표조사 현황

유적	보고	입지	성격	유물	시기
대신동	1959	평지	판석조 석관묘	2단병유구식석검	하b : 後期 후반
동래	1959		채집	일단병식석검	하b : 後期 전반
사직동A	1965	구릉	판석조 석관묘	短斜線文外反口緣壺, 1단병식석검	서 : 後期 전반
사직동?	1965		支石墓	2단병유구식석검	
槐亭1洞			불명	직립장경호	하b, 서 : 後期 후반
槐亭2洞	1972	구릉	할석조 석관묘	단도마연직립장경호, 1단병식석검, 첨근1段莖式石鏃	하b, 서 : 後期 후반
槐亭洞	1977 2001	구릉	패총	단도마연外反口緣파수부호 삼각형石刀, 주상합인石斧	하b, 서 : 後期
온천동A	1989		채집	유경식석검	
반송동	1997		채집	일단병식석검	하b : 後期
온천2동	1997		채집	1단병식석검	
당감동	1997		채집	석착	하b : 後期
양정동	1997		채집	주상합인石斧	하b : 前期
임랑리	1998		채집	편평합인石斧	서 : 前期
老圃洞 대룡	1998	구릉	판석조 석관묘	(묘 1기) 無文土器편	서 : 後期
복천동	1996	구릉	채집	有溝石斧, 편평편인石斧	하b : 後期
길천리	2001		채집	단주형·단어형 石刀	서 : 後期
온천동B	2001		채집	(支石墓?) 석검	서 : 後期

서 : 서영남 2001, 하a : 河仁秀 1988, 하b :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1997

(2) 발굴조사

발굴조사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총 8건에 불과하다. 이것은 인접한 蔚山市의 현재 1년 치에도 못 미치는 숫자이다.

靑銅器時代의 유적이 주로 강변의 충적지에 대규모가 입지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釜山의 여러 하천이 지금의 시가지를 거미줄처럼 엮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시가지 개발에는 발굴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생활환경의 개선책으로써 오염된 하천을 되살리듯이, 釜山의 역사를 되살릴 문화유적을 되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표3. 釜山지역 靑銅器時代 유적의 발굴조사 현황

유적	보고	입지	성격	유물	시기
조도	1976	평지	패총 Ⅲ층	孔列文직립장경호, 孔列文深鉢, 1단병식석검	하b : 前期·後期 서 : 前期
율리암음	1980	산지	패총 ⅡⅢ층	평근1段莖式石鏃, 석착, 환상石斧, 지석	하b : 前期 서 : 前期 (후반)
老圍洞	1988	구릉	1호 住	직립장경호	하a : 前期 후엽 하b : 前期 서 : 前期
			2호 주거지	口脣刻目文深鉢, 첨근1段莖式石鏃, 주형석기	
			채집	단주형石刀, 첨근1段莖式石鏃	
오륜동	1991 1999	구릉	채집	有溝石斧, 합인石斧, 토제방추차, 갈돌, 지석	하b : 前期 서 : 前期~後期전반
감천동	1966 1992	평지?	1호 支石墓	(할석조석관) 1단병식석검	하b : 後期 전반 (5호), 후반 (1호) 서 : 後期 안 : 後期 후반(유구石斧)
			5호묘	2단병식석검	
			채집	有溝石斧, 편평편인石斧	
청강리	1998	구릉	채집	단도마연호	하b : 前期
盤如洞	2005	구릉	1호 주거지	돌류문·短斜線文 深鉢, 만입무경식石鏃, 석착, 합인石斧, 토제방추차	임 : 前期 (1호주.) 하b : 前期 서 : 後期 先松菊里類型
			2호 주거지	직립장경호, 2단병유구식석검, 석창	
			채집	蛤刃石斧	
온천동	2005	구릉	溝	파수부발	

임 : 임효택·곽동철 2005, 서 : 서영남 2001, 하a : 河仁秀 1988, 하b :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1997, 안 : 安在晧 1992

표3의 8건의 유적발굴도 거의 파괴된 유적을 수습하는 수준이거나, 유적지 일부를 샘플링하듯이 매우 한정된 범위에 불과하여 전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釜山지역에도 현시점에서의 최고의 靑銅器時代 취락은 盤如洞유적[64]인 靑銅器時代 前期 후반에는 취락이 존재했다는 정도밖에 언급할 만한 것은 없다. 靑銅器時代의 시작과 전개 그리고 三韓사회로의 전환 등과 같은 문제는 전혀 밝힐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2. 연구현황

(1) 연구의 경향과 성과

① 後期의 지역상

필자[65]는 기존의 이백규의 前期無文土器 한강유역형성설[66]에서의 欣岩里式土器와 松菊里式土器의 시간 사이에는 釜山을 포함하는 영남지방 동부와 忠淸道지방을 비교한다면, 토기문양에서의 지역색을 보인다고 말한 바가 있었다. 이것은 남한지역에서의 지역색을 논한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松菊里文化로의 토기의 무문양화에 주목하여 영남 동부지역에서는 口脣刻目文→孔列文→短斜線文을 거쳐 무문화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1992년에는 석검과 石刀의 분포도를 통하여 松菊里文化의 북한계선은 天安-大田-大邱-慶州로 구획하였다. 또

64) 임효택·곽동철, 『부산반여동유적』 東義大學校博物館, 2005
65) 安在晧, 「南韓 前期無文土器의 編年」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1
66) 李白圭, 「京畿道出土 無文土器 磨製石器」 『考古學』 3, 韓國考古學會, 1974

石刀의 분포도를 통해서 三角型石刀가 우세한 西南지역, 短舟型石刀가 주로 분포하는 東南端(이후 東南海岸이라 한다)지역 그리고 이 양지역의 중간을 櫛型石刀가 우세하다하여 東南內陸지역으로 나누었다.[67] 여기에서 東南內陸지역은 咸安과 泗川도 포함하는 광역이었다. 편년을 통한 시간성에서 短斜線文이 가장 늦은 시기까지 존속하는 지역으로는 慶州-蔚山-梁山-釜山의 동해안지역으로 좁혀 보고 있다. 이것은 전술한 연구의 영남지방 동부와 같은 권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석기와 토기의 분포양상에 檢丹里式住居址의 형식을 포함하여 東南內陸지역을 西로는 寶城江유역, 北으로는 黃江유역, 東으로는 咸安을 포함한 洛東江 以西지역까지로 구획하였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洛東江 以東의 浦項까지를 東南海岸지역으로 삼을 수 있지만, 이 권역에서 유적의 분포만을 본다면 역시 동해안에 인접한 지역으로 축소 국한된다. 토기, 석기, 주거지 등에서의 지역색이 나타나는 시점을 先松菊里類型단계라고 하였고, 松菊里단계에도 그러한 지역색은 계속한다고 하였다. 이 시기를 남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無文土器時代 中期[68]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한편 이보다 앞선 前期에는 欣岩里系토기가 일반적으로 출토하는데, 이 시기에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며, 경남지역과 釜山을 하나의 文化圈으로 묶을 수 없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69] 경남지역에서 驛三洞系토기 즉 孔列文 口脣刻目文 구순

67) 安在晧, 「松菊里類型의 檢討」『嶺南考古學』11, 嶺南考古學會, 1992

68) 無文土器時代 또는 靑銅器時代 中期의 설정은 개념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이미 藤口健二(1986「朝鮮無文土器と弥生土器」『弥生文化の硏究3』弥生土器Ⅰ, 雄山閣)와 河仁秀(1989『嶺南地方丹塗磨硏土器에 대한 新考察』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 論文)에 의하여 논의되었다.

69) 安在晧「無文土器時代의 對外交流」『港都釜山』17號, 釜山市, 2001.

刻目孔列文만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거창, 합천의 黃江유역을 주목한다. 이 지역은 後期의 유적도 조사되었지만, 釜山-慶州의 동남 동부지역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양상은 이 지역이 산악이 발달된 지역으로서 강원도나 한강 상류의 제 유적처럼 火田農耕을 생업으로 하며, 驛三洞系土器가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後期 전반대에는 釜山 경남지역은 석기 주거지 묘제 등에서는 제일성을 보이지만, 토기의 전개양상은 東南內陸지역과 東南地域으로 분리되며, 그 경계를 이루는 것이 洛東江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東南內陸지역은 다시 세분되는데, 赤色磨硏內頃호 1段莖式石鏃 松菊里型住居지와 관련된 口脣刻目文이 나타나는 咸安과 金海지역권과 孔列文이 중심인 宝城江-南江流域으로 권역화한다.[70]

이상으로 지역상에 대해서는 松菊里文化의 형성과 관련하여 토기를 중심으로 영남지역의 경우는 南江流域의 西部, 洛東江의 서쪽인 咸安-金海인 中部(이상 구고의 東南內陸地域), 동해안에 가까운 東部(구고의 東南端地域이지만, 東南海岸지역으로 변경함)로 나누어진다. 이 전체의 지역권은 토기의 변천 양상만이 아니라 석기와 주거지에서도 다른 西南地域圈과 대응한다. 지금까지 서술한 것을 간략한 표로써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0) 安在晧, 2006『靑銅器時代 聚落硏究』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표4. 松菊里文化圈의 지역상

지역권		東南海岸지역	東南內陸지역				서남지역
		洛東江하류		南江권	黃江권	洛東江 중류권	
		동부권	서부권				
前期	토기	欣岩里계 可樂洞계	欣岩里계 可樂洞계?	欣岩里계 可樂洞계?	譯三洞계	欣岩里계 可樂洞계?	可樂洞계 欣岩里계
後期 전반	토기	孔列文→ 短斜線文	口脣刻目文	孔列文 口脣刻目文	(무문?)	무문	口脣刻目文
	주거	檢丹里식	檢丹里식	檢丹里식	?	大邱형	休岩里식
후반	주거	梧谷里식	梧谷里식	梧谷里식 松菊里식	梧谷里식 (松菊里식)	大邱형 梧谷里식	松菊里식 梧谷里식

끝으로 표의 내용을 부언 설명하고자 한다. 지역색이 뚜렷해지는 시기는 後期부터이다. 하천을 경계로 또는 중심지로서 설정할 수 있는지는 향후 유적의 분포를 통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전술하지 못하였던 大邱型住居는 大邱 東川洞유적[71]에서 확인된 圓型住居로서, 토기가 출토되는 토기에는 무문양인 것이 특징이다. 大邱에서 이러한 주거형태와 공반되지만, 최근 淸道 陳羅里유적[72]도 이에 같으므로, 大邱圈을 확장하여 洛東江 중류권이라고 설정하였다. 黃江유역권은 前期에는 다른 지역과 다른 토기의 지역색이 보이지만, 後期에도 타지역과는 다른 토기양상이 보일지는 알 수 없지만, 석기의 공반을 통해서 後期의 유적임에도 토기의 문양이 보이지 않는 것은 洛東江중류권과 유사한 양상을 보일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영남의 大邱-慶州를 잇는 그 以南에서 後期의 지역상은 4-5개의 지

71) 嶺南文化財硏究院, 2002『大邱 東川洞聚落遺蹟』
72) 嶺南文化財硏究院, 2005『淸道 陳羅里遺蹟』

역권으로 나누어진다. 이에 반해 檢丹里式住居는 본래 평면형태가 말각방형이면서 中央竪穴과 2主柱穴을 가진 것으로 규정했으나[73], 근년의 조사에서 본다면 평면형태가 방형인 것도 포함시켜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蔚山 檢丹里유적이나 梁山 新平유적에서 검출된 말각방형의 檢丹里式住居는 방형의 형태인 주거와는 또 다른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못하지만, 방형이든 말각방형이든 통합된 새로운 주거형식명이 부여되어도 좋겠다.

前期와는 다른 農耕文化로서의 松菊里文化라고 하는 後期의 이러한 지역색은 農耕文化의 지역화인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기후 환경과 지형 토양 등과 관련되었을 것이다. 또는 前期와 後期의 과도기에 나타나는 거점취락이나 特定有力個人의 등장[74]과 관련하여 지역화가 진행되었는지도 모르겠다.

黃炫眞은 後期에 국한된 지역상은 아니지만, 靑銅器時代 전시기에 걸친 편년을 分水界와 지리적 공간을 기준으로 東南海岸지역, 西部慶南지역, 大邱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시도하였다.[75] 여기서도 東南海岸지역은 浦項-梁山을 범위로 삼고 있지만, 釜山은 자료부족으로 빠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에 포함될 것이다. 後期는 제3기와 4기로서 각각을 前·後半으로 두고 있고, 지역상을 보이는 것은 역시 소위 낟알문이라는 (短)斜線文과 橫線文의 토기이다.

董眞淑도 이와 같은 개념의 지역권설정으로 南江流域, 大邱

73) 安在晧,「松菊里類型의 檢討」『嶺南考古學』11, 嶺南考古學會, 1992
74) 安在晧,「中期 無文土器時代의 聚落 構造의 轉移」『嶺南考古學』29, 嶺 南考古學會, 2001
75) 黃炫眞,『嶺南地域의 無文土器時代 地域性硏究』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 學位論文, 2004

지역, 東南海岸지역(兄山江-太和江유역)으로 靑銅器時代를 4기로 편년하였다. 東南海岸지역에서는 타지역과는 달리 松菊里類型文化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며, 前期의 주거를 그대로 잇는 蔚山型住居를 특징으로 거론하였다.[76] 결국 東南海岸지역에서의 松菊里文化 不受容論을 최초로 언급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고, 이후의 지역상 논고에서도 대부분 松菊里文化와의 차별성을 주제로 설명하고 있다.

② 檢丹里式土器 松菊里類型段階(後期 後半)說

檢丹里式土器란 無文土器의 구연에 短斜線文이나 橫線文을 시문한 深鉢形土器이며, 蔚山을 비롯한 慶州 浦項 梁山 釜山 金海에 분포하여 松菊里文化圈과 대치하는 東南海岸지역의 靑銅器時代 後期의 표지적인 유물로 설정되었다.[77] 그리고, 釜山과 梁山 金海는 이 양 文化圈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문양토기를 先松菊里類型으로 보고 後期 전반에 한정한 것과는 다르다. 즉 檢丹里式土器는 방형의 蔚山式住居址와 조합되어 松菊里型住居를 동반하는 松菊里文化에 대응한 것으로서 後期후반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時代 개념에서 檢丹里類型이 설정되는데, 蔚山型住居址, 蓮岩洞型住居址, 방형의 소형석관묘, 東北型石刀, 단면 방형 또는 타원형의 토제 어망추, 마제석창, 檢丹里式土器로 구성되며, 특히 檢丹里式土器는 前期의 토기에서 퇴화되어 얕게 파이거나 압인상의 孔列文이나 소위 난알문이라는 短斜線文이 많아지는 시기에 나타나는 橫線文을 지표로

76) 董眞淑, 『嶺南地方 靑銅器時代 文化의 變遷』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3
77) 李秀鴻, 『檢丹里式土器에 대한 一考察』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5

삼는데 주로 (파수부)深鉢形토기에 시문된다.[78] 檢丹里類型과 공반되는 蔚山의 야음동과 두왕동, 대안리유적의 有溝石斧가 粘土帶土器단계의 것과 같은 평면형태라는 점에서 檢丹里式土器가 後期 후반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분포는 慶州와 蔚山을 중심지로 하고 그 주변으로서는 浦項과 梁山을 넣고 있다. 千羨幸[79]과 金賢植[80]도 檢丹里式土器의 시간성을 앞서 두 사람의 견해와 같다.

이상과 같은 연구 즉, 檢丹里유적의 시기가 後期 후반까지 편년된다는 것은, 蔚山지역의 소위 松菊里型住居부재론을 거론한 金榮珉의 주장[81]을 형체화시킨 董眞淑의 견해[82]가 최초이다. 그는 영남지방을 南江流域 大邱지역 동해안지역으로 나누고 각각을 前期부터 後期까지 4단계로 편년하였다. 특히 동해안지역의 제4단계는 필자가 檢丹里式住居로 설정하였던 梁山 新平9호주거지와 蔚山 檢丹里 27호주거지를 들고 있고, 短斜線文토기와 長身의 1段莖式石鏃을 지표로 삼고 있다. 이들 주거지를 필자는 先松菊里類型으로서 後期 전반이라고 보았던 것인데, 後期 후반으로 판단한 이유는 東南海岸지역에서 松菊里型住居의 공백으로써 松菊里類型文化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이에 이어 黃炫眞의 견해[83]도 전자와 같다. 이 논고에서는 檢丹里式土器라는 것이 설정되지는 않았

78) 裵眞晟,「檢丹里類型의 成立」『韓國上古史學報』第48號, 韓國上古史學會, 2005
79) 千羨幸,「영남지방 무문토기시대 중기로의 문양구성 변화」『石軒 鄭澄元敎授停年退任記念論叢』釜山考古學硏究會 論叢刊行委員會, 2006
80) 김현식,「청동기시대 검단리類型의 형성과정과 출현배경」『韓國上古史學報』第54號, 2006
81) 金榮珉,「蔚山 蓮岩洞型 住居址의 檢討」『울산연구』2, 울산대학교박물관, 2000
82) 董眞淑 『앞의 책』
83) 黃炫眞 『앞의 책』

지만, 蔚山 檢丹里 제3기[84]나 梁山 新平 제2기[85]를 제4기로 편년하고 後期 후반으로 잡았다. 그 특징으로 낟알문토기, 1段莖式石鏃과 그 외에도 주거지, 石刀, 石斧류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들은 시간적 특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 낟알문토기가 이후의 諸논고에서 檢丹里式土器로 설정된 그것이다.

③ 弥生文化 形成과의 관련

韓半島의 農耕文化가 日本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인지는 北部九州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弥生早期는 農耕文化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水田, 大陸系石器, 赤色磨硏壺 등이 출현하는 기점으로 설정되고 있다[86]. 日本에서의 이러한 양상은 韓半島 後期의 소위 松菊里文化에 해당하는데, 環濠와 水田을 수반하면서 松菊里型住居址·石蓋土壙墓·木棺墓 등의 遺構에 內傾하는 赤色磨硏土器·1段莖의 尖根式石鏃·抉入有莖式石劍·有溝石斧·三角型 또는 短舟型의 石刀·松菊里式壺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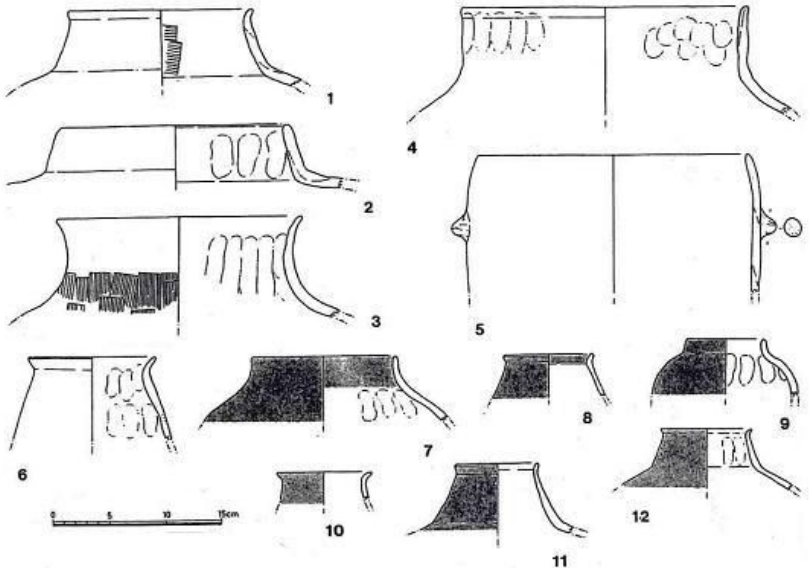
일직이 金廷鶴은 한반도 남부지방의 可樂洞式계통의 토기가 弥生式土器의 원류로 인식하고, 板付Ⅰ式土器의 좁은 저부와 구연부의 刻目기법 그리고 繩文토기에는 보이지 않았던 壺形土器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繩文時代 後期부터 晩期의 토기·석기·묘제 등에서 이미 한반도 남부지방의 無文土器文化의 영향이 있고, 특히 黑川式토기·山ノ寺式土器·夜臼式토기 등에 深鉢形토기와 함께 壺形土器가 나타나고, 深鉢에는 구연부의 刻目文과 豬口形平底의 수법이 可樂洞式토기계통의

84) 釜山大學校博物館,『蔚山檢丹里마을遺蹟』, 1995
85) 釜山大學校博物館,『梁山新平遺蹟』, 2000
86) 佐原眞,「弥生時代弥生文化弥生土器」『弥生土器Ⅰ』ニューサイエンス社, 1983

특징이다고 하였다. 그래서 繩文式土器의 전통에 弥生式土器의 요소가 첨가된 繩文 後期 혹은 晩期의 토기양식에서 弥生式土器의 원류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87] 하여튼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몇 안되는 青銅器時代의 발굴성과로써 이러한 추정은 대단한 성찰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만 현재의 자료로 본다면 可樂洞계토기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본 弥生時代가 한반도의 農耕文化에서 성립하였다고 바라본 杉原莊介는 실제로 釜山 槐亭1·2洞(A·B지점)에서 출토된 赤色磨硏土器壺가 일본 板付유적 環濠에서 출토된 夜臼式토기들 중에 繩文토기에서 계보를 찾을 수 없는 夜臼B式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88] 그는 槐亭1洞(A지점)의 패층 아래에서 출토된 外反口緣의 赤色磨硏土器壺를 槐亭洞Ⅰ식으로, 패층 속의 유물들을 槐亭洞Ⅱ식으로 설정하였고, 이 槐亭洞Ⅰ式土器와 夜臼B式土器의 선을 따라 일본 최초의 農耕文化가 한반도에서 도래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板付式土器라는 최초의 弥生토기가 생겨났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松菊里文化 관련 유적이 거의 알려지지 않을 때였고, 槐亭洞Ⅰ式土器라고 설정한 外反口緣壺도 실은 肩部에 把手가 붙고 동최대경의 위치도 상위에 있는 기형으로 재복원[89]되었지만, 松菊里文化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外反口緣壺에 주목한 것은 양지역의 文化교류사적 측면에서는 선구적인 지적이었다.

87) 金廷鶴,「青銅器時代」『韓國の考古學』河出書房新社, 1972, p92.
88) 杉原莊介,『日本農耕社會の形成』吉川弘文館, 1977 pp262-268.
89) 尹郁映,「釜山 槐亭洞貝塚出土 丹塗磨硏土器」《古文化》1992, 4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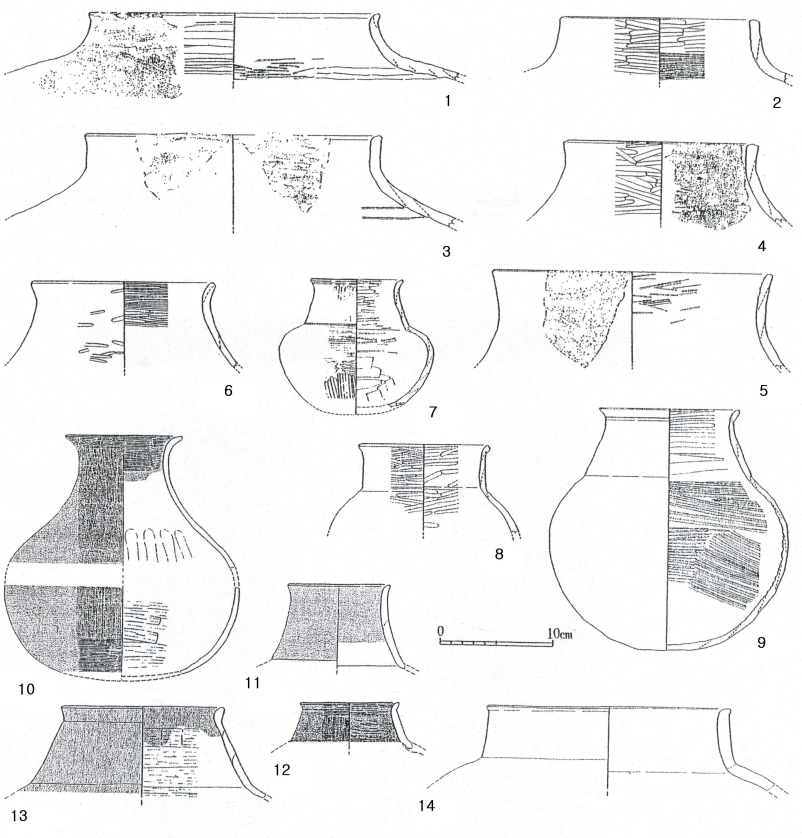


1圖. 昌原 上南遺蹟 출토품 1·3·10·12 : 祭祀遺構, 其他 : 溝

필자는 後期의 地域相을 통하여 일본의 弥生時代 早期에 九州지방에 전파된 農耕文化는 口脣刻目文土器라든가 赤色硏磨壺를 통하여 咸安-金海지역권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90] 그 대표적인 유적이 昌原 上南유적[91]이다. 특히 頸이 內傾하는 大型壺(1도-1·2)는 現在 他地域에서는 出土된 바가 없는 이 地域의 固有한 型式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赤色磨硏土器의 內傾頸型式과 같은 形態의 無文土器壺가 출토된다는 점은 日本 弥生文化 形成의 問題에 있어서 重要한 資料라고 생각된다. 이 三南遺蹟의 土器資料를 보면 日本 夜臼式單純期라고 하는 曲リ田遺蹟[92]의 資料와 器形에서나 共伴樣相

90) 安在晧, 『青銅器時代 聚落硏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6
91) 李柱憲, 『昌原上南先史遺蹟』 國立昌原文化財硏究所 學術調査報告 第12輯, 2001
92) 福岡縣敎育委員會, 『石崎曲リ田遺跡』, 1985

에서 類似性을 發見할 수 있다.



2圖. 日本 弥生 早期의 韓半島系土器

1~9 : 菜田遺蹟 9~12층, 10~14 : 曲り田遺蹟 8~15층.

또 菜田遺蹟의 山の寺式期인 제9~12층에서 출토된 壺形土器(2도의 1~6)에도 1도의 1·3·4와 同形이 존재한다.[93] 그런데 杉原荘介가 지적한 일본 板付유적의 환호출토 赤色磨研外反口緣

93) 唐津市·唐津市教育委員會, 『菜田遺跡』 唐津市文化財調査報告第5集, 1982

壺와 같은 기형은 최근의 자료로는 南江유적[94]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기형의 無文土器型 赤色磨硏土器가 釜山지역까지 넓게 분포하는 것인지, 주분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南江流域에서 흘러간 것인지는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일본 弥生文化의 형성에는 南江流域의 文化도 직간접으로 관련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외에도 釜山지역을 중심으로 취락의 입지를 살핀 것[95]도 있지만, 後期의 水田稻作을 전제로 한 통상적인 추정에 불과하거나, 입지 그 자체의 분류도 구릉 계곡 평지 또는 산지라는 기존의 인문지리적 연구[96]에 미칠 뿐이다. 역시 시간적인 추이나 입지의 선택성이라든가 입지에 따른 취락구조나 네트워크 등은 도시화된 釜山의 영세한 자료로써는 다룰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의 석기에 대한 일본으로의 영향은 매우 크기는 하지만, 석기의 지역성이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釜山지역과의 연관성은 언급할 수 없다.

(2) 향후 연구의 과제

앞서 3類型의 연구사에서 보았듯이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94) 김양미,『晉州 大坪里 玉房1地區 遺蹟Ⅱ』國立晉州博物館, 2001
趙榮濟 외,『晋州 大坪里 玉房 3地區 先史遺蹟』慶尙大學校博物館, 2001
李柱憲,『晋州 南江 漁隱2地區 先史遺蹟Ⅱ』國立昌原文化財硏究所, 2002
金賢 외,《晋州 大坪 玉房1·9地區 無文土器 集落》慶南考古學硏究所, 2002

95) 서영남,「釜山의 靑銅器時代 遺蹟과 遺物」『港都釜山』第17號,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2001
윤태영,「靑銅器時代의 聚落」『港都釜山』第17號,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2001

96) 後藤 直,「朝鮮半島原始時代農耕集落の立地」『第四紀硏究』第33卷第5號, 日本第四紀學會, 1995

이것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최초로 구명하고 싶은 것은 역시 釜山의 靑銅器時代 文化圈이 어디에 속하며, 어떤 범위를 가지느냐이다. 이 문제는 老圃洞유적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釜山 老圃洞유적에서는 2점의 石鏃이 주거지와 표토층에서 출토되었는데, 모두 1段莖尖根式으로서 後期의 지표이다. 그런 의미에서 2동의 주거지도 모두 後期의 것이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2호주거지는 石鏃과 함께 口脣刻目文深鉢이 출토되었는데 前期로 편년되는 것은 다분히 蔚山 檢丹里유적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즉 東南海岸지역에서는 口脣刻目文이 孔列文이나 短斜線文보다 빨리 소멸한다는 양상을 참조한 것이다. 그러나, 尖根式의 1段莖式石鏃은 분명히 後期의 지표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영남에서 口脣刻目文深鉢을 찾을 수 있는 지역은 咸安-金海圈이다. 이러한 해석이 자료의 조합과 부응하는 것이므로, 後期 전반으로 설정할 수 있다. 1호주거지는 직립장경호가 출토되었지만, 이것도 구경이 다소 좁은 형태에서는 後期 전반으로 두어도 좋을 것 같다.

그런데, 盤如洞유적의 2동 주거지는 다분히 館山里式住居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각각 공반된 石鏃과 석검을 통해서 본다면 前期 후반이 틀림없다.[97] 그런데 短斜線文은 소위 檢丹里式土器의 난알문기법이다. 따라서, 釜山지역이 東南海岸지역권과 咸安-金海圈의 두 文化가 뒤섞인 지역으로 설정가능하다.[98] 이러한 양지역권의 文化는 시기를 달리하여 나타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자료가 증가하면 공존하였는지

97) 임효택·곽동철, 『부산반여동유적』 東義大學校博物館, 2005
98) 李秀鴻 「앞의 글」

도 밝혀질 것이다.

따라서, 釜山지역은 前期에는 檢丹里式土器분포권에 속할 것이고, 後期에는 洛東江西岸圈이랄 수 있는 咸安-金海圈에 속하였는지, 또는 이 양 지역의 文化가 공존하는 절충지역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발굴을 통하여 밝혀야만 될 선결과제이다.

두 번째로는 檢丹里式土器 後期後半說에 대한 것이다. 盤如洞유적에서의 난알문토기는 前期 후반의 늦은 시점인데, 그 다음의 後期에서도 이러한 문양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檢丹里式土器를 後期 후반까지 이어진다는 전술한 諸說들은 東南海岸지역에서는 松菊里型住居가 발견되지 못한다는 현상에 중점을 두고서 결국 松菊里型住居 부재현상을 통해 方型住居가 시간적으로 이에 대체된다는 가정에서 시작되고, 또 그들의 주장은 松菊里文化 중에서 松菊里型住居址나 外反口緣壺가 영남 東南海岸지역에는 외부로부터 전파되지 못하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松菊里文化 외래계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의 발단은 董眞淑의 논고[99]에서 시작하여 黃炫眞[100]이 보다 구체화시켰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따르는 추세이다. 그러나 董眞淑의 편년방법은 유물의 형식설정에도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무엇보다 순서배열법을 사용한 것에서 전혀 유구나 유물의 형식배열이 바른 모양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리고 黃炫眞의 제4기 즉 後期 후반은 지역색이 없는 石

99) 董眞淑 『앞의 책』
100) 黃炫眞 『앞의 책』

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제3기와 비교하여 제4기는 토기문양에서는 차이가 없고, 다만 石鏃의 형식을 통하여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석기는 토기에 비하여 시간성이 길고, 또 氏가 石鏃Ⅲ·Ⅳ式의 구분을 신부의 길이와 頸 길이의 비례에 두고 있지만, 石鏃의 신부는 재가공되어 짧아지는 것은 흔히 실견하는 현상이므로, 형식설정에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필자는 1段莖式石鏃에서 莖端部가 직선적인 平根式(필자 1991년의 Ⅲa·Ⅲb류)과 뾰족한 尖根式(Ⅳ류)의 시간성[101]을 인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 氏는 西部慶南을 4단계로 편년하면서 後期 전반인 제3기에는 石鏃Ⅲa式이 사라지고 Ⅲb·Ⅲc·Ⅲd石鏃과 有溝石斧의 출현을 성격으로 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의 조합에다 Ⅳ式石鏃을 더하여 東南海岸지역에서는 제4기로 설정한 것이다. 東南海岸지역의 제3기에는 Ⅲa式石鏃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東南海岸지역은 西部慶南에서의 공반양상보다 1단계씩 늦도록 배열하고 있는 것이다. 선사時代에 있어서 이러한 지역간의 병행관계는 있을 수 없는 방법이지만, 아마도 松菊里文化가 서쪽에서 東南海岸쪽으로 전파되어 왔다는 松菊里文化외래계설에 근거하여 그 전파된 시간의 폭을 1단계쯤 늦추게 한 것 같다.

필자의 생각은 고고학의 시간단위가 일정시간대를 가진 형식이라고 한다면, 공반양상이 같은 경우는 어느 만큼의 원거리라고 해도 같은 시간임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결국 黃炫眞의 東南海岸지역의 제4기는 西部慶南 제3기의 양상과 같은

101) 庄田愼也,「韓國嶺南地方南西部の無文土器時代編年」『古文化談叢』第50集(下), 九州古文化研究會, 2004. 한편으로 大島隆之(「韓國無文土器時代磨製石器の時期差と地域差」『古文化談叢』第50集(上), 九州古文化研究會, 2003)는 平根式과 尖根式을 시간성으로 보지 않고 관부의 형태를 중시하고 있다.

것으로 西部慶南의 편년에 따른다면 後期 전반에 해당하게 되며, 이것은 필자의 기본편년안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결국 東南海岸지역에서 원형의 주거지가 발견되지 않는 다는 것은 이 좁은 지역에서만 松菊里型住居가 일반화하지 못하였을 자연적 환경요인이나 지리적 장애도 없다. 더구나 蔚山지역은 이른 시기의 구획식 논이나 계단식 논이 현재로서는 여타지역보다 많이 발견되는 지역이다. 松菊里文化가 農耕文化를 가장 큰 특징으로 삼는다면, 이러한 지리적 조건에 대치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아직 평지에 대한 조사가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의 자료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영남지역에서 松菊里型住居의 발굴예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 대부분은 평지의 河岸 충적지에서 발견되고 낮은 구릉지 또는 선상지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立地는 중서부지역의 구릉지에서만 검출되는 양상과는 다른 것이다. 영남지역에서는 松菊里型住居가 강변의 충적지에 立地하는 성향이 강한 것은 틀림없고, 중서부지역과는 다른 경관을 가졌다는 특징이다.

한반도에서 松菊里住居가 유행하던 時期의 日本열도는 弥生時代 早期에 해당한다. 이 時期는 한랭한 기후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 한랭한 기후 탓으로 해수면이나 강의 수위가 낮아져서 모래사장이 지상에 드러나게 되고, 이 모래들은 차갑고 강한 바람에 날려 인근의 육지에 새로운 砂丘를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日本 北九州지방이나 山陰지방의 해안가에 분포하는 弥生時代 早期의 遺蹟들이 대체로 이러한 사구 위에 遺蹟이 형성된다고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102] 아마도

102) 甲元眞之, 『日本の初期農耕文化と司會』 同成社, 2004, p17.

이 時期의 한반도도 日本과 비슷한 기후였거나 더욱 추웠을 것임은 틀림없다. 따라서 前期에 비하여 지하수면이 낮아져 農耕에 필요한 농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낮은 저지대로 住居의 영역이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그러한 이유로 영남지역에서 河岸의 충적지에서 松菊里型住居의 聚落이 검출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싶다.

이러한 기후와 관련하여 聚落立地를 고려한다면 蔚山지역의 경우도, 구릉지에서 소위 松菊里型住居가 蔚山 檢丹里遺蹟, 梁山 新坪遺蹟에서 소수만이 발견[103]되는 현상은 평지의 충적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는 일본에 전파된 農耕文化의 기원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것으로서, 支石墓 또는 석관묘 등의 무덤에 부장된 赤色磨硏土器의 문제이다. 後期의 赤色磨硏土器는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는 지역색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東南海岸지역은 蔚山 檢丹里유적에서도 또 梁山 所土里유적[104]에서 특징적인 기형을 찾아 볼 수 있다. 梁山 所土里유적의 赤色磨硏土器는 梧谷里型住居址의 상층에 형성된 분묘에서 출토된 것으로서, 檢丹里유적과 같이 直立頸의 赤色磨硏土器이다. 이 형태의 典型 赤色磨硏土器는 赤色磨硏土器 초기연구에서는 이른 시기로 편년[105]되었지만, 늦은 시기에도 존속하는 것이 이 동남지역의 지역색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반하여 頸이 직립 內傾하는 기형은 咸安-金海圈[106]에서 두드러진다. 또 南江

103) 올해 蔚山市 언양의 교동리에서도 松菊里型住居 1동이 蔚山文化財硏究院에 의해서 조사된 바 있다.
104) 崔鍾圭 외,『梁山 所土里 松菊里文化集落』 慶南考古學硏究所, 2005
105) 河仁秀,『嶺南地方丹塗磨硏土器에 대한 新考察』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9
106) 金惠珍·裵眞晟,「咸安地域 支石墓의 特徵과 地域性」『咸安地域調査』 慶南考古

流域의 유적에서는 咸安-金海圈과 같은 기형도 보이지만, 頸이 짧게 外反하는 소위 양파형이 많다. 大邱圈은 大邱 東川洞 유적[107]과 淸道 陳羅里유적[108]에서 보이듯이 頸이 곡선적이며 다소 장경화된 기형이 특징으로 보인다.

이렇듯 영남 남부지역은 赤色磨硏土器가 靑銅器時代 後期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지역상을 보이는 것 같다. 일본열도로의 전파에서 弥生早期부터 보이는 주거형태는 영남을 주분포로 하는 梧谷里型住居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 속에서도 적색마연토기와 無文土器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Ⅴ. 맺음말

이상에서 부산지역 선사시대 고고학적 연구에 대한 회고를 통해 앞으로 연구과제와 전망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산지역은 일찍부터 도시화되고 각종 개발에 따라 많은 유적이 소멸 또는 유실되어 각 시대 마다 유적 분포 양상과 그에 따른 연구 성과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구석기와 청동기시대는 관련 연구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주변 지역까지 포괄하여 다룰 수밖에 없었다. 신석기시대

學硏究所, 2005
東亞大學校博物館,『金海府院洞遺蹟』, 1981
朴東百 외,『咸安 梧谷里遺蹟』 昌原大學校博物館, 1995
昌原文化財硏究所,『咸安岩刻畵古墳』, 1996
國立昌原文化財硏究所,『昌原上南支石墓群』, 1999

107) 嶺南文化財硏究院,『大邱東川洞聚落遺蹟』, 2002
108) 嶺南文化財硏究院,『淸道 陳羅里遺蹟』, 2005

에 대한 연구 역시 부산지역 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적고, 단편적인 글들이 대부분이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점도 없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고 그 성과가 축적된 후 다시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Sample, L.L, 「Tongsamdong ; A Contribution to Korea Neolitic Culture History」『Artic Anthropology』 XI-2, 1974

경성대박물관, 『태종대 진입도로 확장부지내 부산동삼동유적』 2006

국립중앙박물관, 『동삼동패총』 Ⅰ~Ⅳ, 2002. 5

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 Ⅰ, 1981

宮里修,「戰前の朝鮮における石器時代の調査研究について」『朝鮮史研究會論文集』 42, 2004

金東鎬,「釜山地方의 貝塚」『古文化』 4, 1966

金東鎬,「영선동패총의 재검토」『부산사학』 8, 1984

金東鎬,「韓國東南海岸島嶼の先史土器とその文化」『考古學シヤナル』183, 1980

金龍基,「多大浦貝塚 發掘調査 報告」 『釜大史學』 2, 1971

金元龍,「東萊出土의 先史時代 短頸壺」『亞細亞研究』8-2, 高麗大學, 1965

金元龍,『한국고고학개설』 일조각, 1973

金廷鶴,「青銅器時代」『韓國の考古學』河出書房新社, 1972

金廷鶴, 「先史時代의 釜山」『釜山市誌』上, 1974
金廷鶴編,『韓國の考古學』 河出書房新社, 1972
及川民次郎,「南朝鮮牧ノ島東三洞貝塚」『考古學』 4-5, 1933
吉井秀夫,「釜山考古會とその活動について」『倭城の硏究』 5, 2002
大曲美太郎,「慶南 多大浦にて貝塚發見」『ドルメン』 3-6, 1934
朴商憲, 「釜山 甘川洞支石墓」『考古美術』7-1, 1966
朴商憲, 「洛東江口 東岸의 貝塚」『考古美術』第6卷 第6號, 1965. 6
박영철·장용준,「부산의 구석기문화」『항도부산』17, 2001
釜山女子大學博物館,『加德島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1993
부산대박물관,『기장군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1998
부산대학교박물관,『福泉洞古墳群』Ⅲ, 1996
부산대학교박물관,『金谷洞栗里貝塚』1980
부산대학교박물관,『釜山 老圃洞遺蹟』 1988
부산시립박물관,『동삼동패총정화지역발굴조사보고서』 2007
釜山水産大學校博物館,『北亭貝塚』 1993
부산시립박물관,「伽倻文化圈遺蹟精密調査報告書」 1991. 12
부산시립박물관,『釜山 老圃洞遺蹟』 Ⅱ, 1988
부산시립박물관,『凡方貝塚』 Ⅰ, 1993
부산시립박물관,『凡方貝塚』 Ⅱ, 1996
부산시립박물관,『좌동·중동구석기유적』 2001
부산시립박물관,『이길 봉수대』12, 2004
杉原莊介,『日本農耕文化の形成』吉川弘文館, 1977
서영남,「釜山의 靑銅器時代 遺蹟과 遺物」『港都釜山』第17號,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2001
신숙정,「부산지방의 신석기시대 생업경제」『항도부산』 17, 2001

安在晧,「無文土器時代의 對外交流」『港都釜山』第17號,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2001
有光敎一,「朝鮮磨製石劍の硏究」『有光敎一著作集』1, 同朋舍, 1990
有光敎一,「釜山岩南洞貝塚土器」『朝鮮學報』 36, 1965
有光敎一,「朝鮮釜山府 瀛仙町の一貝塚に就いこ」『人類學雜誌』 5-12, 1936
윤병용, 「釜山지방의 신석기문화에 대한 소고」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5
尹郁映, 「釜山 槐亭洞貝塚出土 丹塗磨硏土器」『古文化』40·41, 1992
李基星, 「植民地時代の考古學」『立命館大學考古學論集Ⅳ』2005
이동주, 「부산의 신석기시대 유적과 유물」『항도부산』 17, 2001
이동주, 「해수면 상승흔적이 확인되는 동삼동유적의 성격에 대하여」『한국신석기연구』 11, 2006
李凡泓, 「東三洞貝塚 採集石器」『考古歷史學志』 8, 1992
이융조·윤용현,「한국 좀돌날몸돌연구」『선사문화』 충북대학교 선사문화연구소, 1994
임돈,「부산 선사기 토기편에 대한 열분석법의 적용」『한국해양대학논문집』 9, 1974
임돈, 「조도의 사적고찰」『한국해양대학논문집』 11, 1976
임돈, 「朝島貝塚 出土 遺物 小考」『韓國海洋大學論文集』13, 「人文社會科學篇」1978
임효택·곽동철,『부산반여동유적』동의대학교박물관, 2005
鄭永和,「東三洞採集石器」『영남고고학』2, 1986
鄭澄元,「金海地方의 櫛文土器文化」『又軒丁仲煥博士 還曆記念論文集』1974
鄭澄元,「南海岸地方 初期櫛文土器의 一檢討」『嶺南考古學』 7, 1990

鄭澄元,「南海岸地方의 櫛文土器 硏究」『釜大史學』6, 1982
鄭澄元,「先史時代의 文化財」『釜山市史』 4, 1991
鄭澄元,「先史時代의 釜山」『釜山市史』 1, 1990
鄭澄元,「新石器時代 丹塗磨硏土器에 대한 一考察」『釜大史學』 4, 1981
鄭澄元,「朝島貝塚 出土 南海岸式 櫛文土器」『考古歷史學誌』 7, 東亞大博物館, 1991
鄭澄元外,『金海 水佳里貝塚』Ⅰ, 釜山大學校博物館, 1981
하인수, 「(2)考察」『釜山老圃洞遺蹟』釜山大學校博物館, 1988
하인수,「동삼동패총 1호주거지 출토 식물유체」『한국신석기연구』2, 2001
하인수,「동삼동패총과 한일신석기시대교류」『용전고고학회』일본, 2001
하인수,「동삼동패총문화에 대한 예찰」『한국신석기연구』 7, 2004
하인수,「범방유적 발굴개요」『한국신석기연구』 3, 2002
하인수,「釜山 多大洞·龍湖洞 出土 石器類」『釜山直轄市立博物館年報』13, 1991
하인수,「신석기시대 한일문화교류와 흑요석」『한국고고학보』 58, 2006
하인수,「嶺南地方 隆起文土器의 再檢討」『嶺南地方의 新石器文化』嶺南考古學會, 1997
하인수,「조도패총의 문화」해양대학교 개교59주년기념심포지움, 2004
하인수,「指頭文土器의 考察」『釜山史學』28, 1995
하인수,「형광X선분석에 의한 동삼동·범방유적 출토 흑요석산지 추정」『한국신석기연구』 6, 2003
하인수,『부산의 선사유적과 유물』 부산박물관 복천분관, 1997
하인수,『영선동식토기와 암사동식토기』 한국신석기연구 5, 한국신석기학회, 2003
하인수,『해운대중동좌동구석기문화』 제8회 영남고고학회학술발표회, 1999

하인수,「新石器時代 山上遺蹟에 대하여」『부산박물관 연구논문집』 12, 2006
韓炳三,「櫛目文土器」『世界陶瓷全集』 17, 韓國古代 小學館, 1979
韓炳三・李健茂 『朝島貝塚』 國立中央博物館, 1979
홍보식・이현주・동진숙,『釜山五倫洞遺蹟』부산시립박물관 복천분관, 1999
横山長三郎,「釜山府絶影島 東三洞貝塚調査報告」『史前學雜誌』5-4, 1933